

최근 인천경제

2026년 9월



I 지역경제

1. 기업경기
2. 투자
3. 수출입
4. 기업금융
5. 고용

II 시민경제

1. 소비
2. 물가
3. 가계금융
4. 소상공인
5. 부동산



최근 인천경제 요약

I. 지역경제

제조업 생산과 수출은 늘었으나, 기업심리 위축과 건설수주 감소, 기업대출 연체율 상승이 이어지며 기업 체감과 자금 여건의 개선은 뚜렷하지 않은 모습

(기업경기) 제조업 생산·출하는 전년보다 늘었으나 기업심리 악화, 동행·선행 순환변동치 격차 확대
(투 자) 설비투자 증가·인천 민간 수주 회복에도 공공 수주 급감과 허가·착공 감소로 건설 부진
(수 출 입) 반도체·의약품이 수출 증가를 이끌었으나 자동차는 감소하며 주력 품목별 흐름 차별화
(기업금융) 기업대출 연체율 4개월 연속 상승하며 상승 폭 확대, 대기업 중심으로 대출잔액 감소
(고 용) 임금근로자는 상용·임사·일용직 모두 증가. 자영업자는 전년동월대비 감소 폭 확대

II. 시민경제

소비지수와 소상공인 체감경기는 반등했으나, 공공서비스 기저효과로 물가 상승률이 확대되고 소비심리도 제자리에 머물며 체감경기 개선은 더딘 상황

(소 비) 소비지수가 4개월 만에 증가로 돌아섰으나 소비심리는 제자리에 머물며 회복 신호는 제한적
(물 가) 농축수산물 가격 하락에도 지난해 낮았던 공공서비스 요금의 기저효과로 물가 상승률 재확대
(가계금융) 주택담보대출 감소로 가계대출 잔액이 6개월 만에 감소했고, 신규 약정 규모도 2개월 연속 축소
(소상공인) 소상공인·전통시장 체감경기가 함께 반등했고 9월 전망은 성수기 기대로 큰 폭 상승
(부 동 산) 매매가격은 전월대비 하락 전환한 반면, 전세는 가격과 수요가 함께 오르며 전세 우위 확대

연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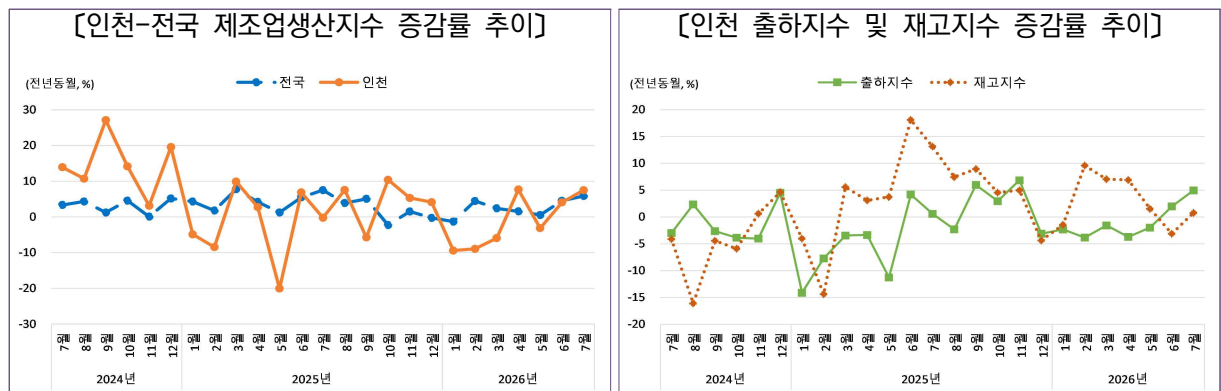
최태림	인천연구원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센터장
류동훈	인천연구원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연구원
차부관	인천연구원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연구원

제조업 생산·출하는 전년보다 늘었으나 기업심리 악화, 동행·선행 순환변동치 격차 확대

- '26.7월 인천 제조업 생산지수는 전년동월대비 7.5% 증가, 전월대비 4.3% 감소하여 151.9를 기록
 - 인천 광공업 생산지수에서 전년동월대비 늘어난 업종은 의약품(34.9%), 기계·장비수리(140.8%), 자동차(9.1%) 등이며, 기계장비(△34.9%), 석유정제(△46.7%), 고무·플라스틱(△11.6%) 등 업종에서는 감소
 - 인천 제조업 생산자제품 출하지수(계절조정)는 120.4로 전년동월대비 5.0% 증가, 전월대비 2.9% 감소했고, 생산자제품 재고지수(계절조정)는 125.8로 전년동월대비 0.8%, 전월대비 1.0% 증가
- (전국) '26.7월 광공업과 서비스업의 전년동월대비 증가 폭이 줄며 전산업 생산 증가율이 3.1%로 낮아졌고, 내구재·준내구재 판매가 감소로 돌아서면서 소매판매도 감소 전환
 - 전국 제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자동차(10.6%), 기계장비(9.6%), 의료정밀광학(21.1%) 등이 증가, 비금속광물(△10.8%), 석유정제(△6.7%) 등이 감소하여 광공업(3.6%) 증가 폭 축소
 - 전국 서비스업은 전년동월대비 금융·보험(10.6%), 전문·과학·기술(11.1%) 등이 늘었으나, 예술·스포츠·여가(△3.7%) 등이 줄어 서비스업(3.5%) 증가 폭이 전월보다 1.9%p 축소

(p:잠정치, 소매판매액지수(내구재,준내구재,비내구재)는 불변지수 기준)

전월비, % 전년동월비, %	전 국						
	전산업	광공업	서비스업	소매판매	내구재	준내구재	비내구재
'26.6월 ^p → 7월 ^p	2.4 → 0.0	6.7 → 0.2	0.9 → △1.3	2.7 → △2.4	12.8 → △7.7	△2.8 → △1.4	0.3 → △0.1
	4.4 → 3.1	6.0 → 3.6	5.4 → 3.5	3.9 → △0.8	10.3 → △4.1	1.2 → △0.2	1.8 →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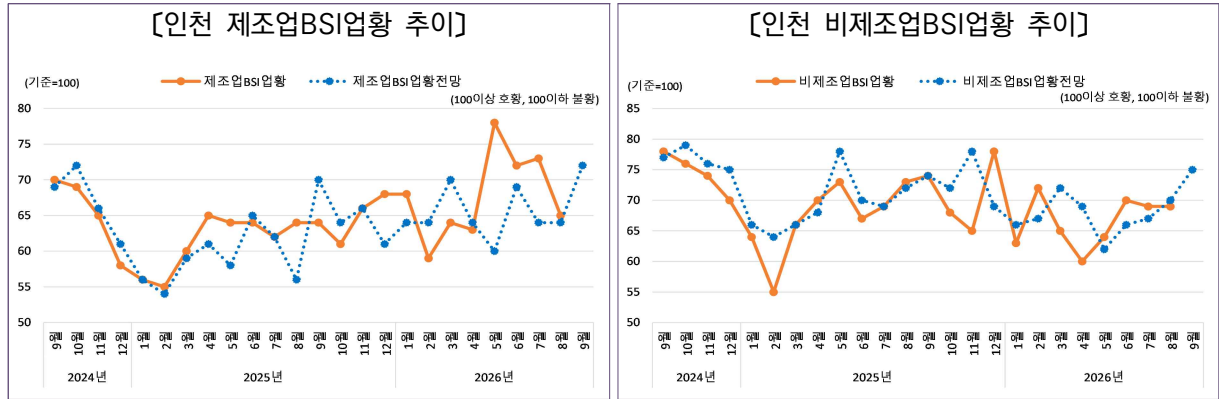
자료 :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통계청

[인천광역시 제조업생산지수]

2020=100 (전년동월, %)	2024년	2025년	2026년					전월대비
	연간	연간	3월	4월	5월	6월 ^p	7월 ^p	
생산지수	146.1 (22.7)	145.9 (△0.1)	154.2 (△5.9)	161.4 (7.7)	135.9 (△3.1)	158.8 (4.1)	151.9 (7.5)	△4.3
생산자제품 출하지수	119.2 (3.2)	116.3 (△2.4)	113.7 (△1.6)	114.3 (△3.7)	110.4 (△2.0)	124 (2.0)	120.4 (5.0)	△2.9
생산자제품 재고지수	108.8 (4.5)	104.5 (△4.0)	115.3 (7.1)	120.7 (6.9)	118.3 (1.5)	124.6 (△3.1)	125.8 (0.8)	1.0

- 주 1) () 연간자료의 경우 전년대비 증감률, 월간자료의 경우 계절조정값을 활용한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p는 잠정치
 2) 전월대비는 최근 제조업생산지수의 전월대비 증감률을 나타냄
 3) 자료 :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통계청 (* 연쇄지수 작성방법에 따라 가중치 변경 및 연간보정 반영으로 일부 시계열 변경)

- '26.8월 인천 제조업 BSI 실적은 65로 전월대비 8p 감소·전년동월대비 1p 증가, 비제조업은 69로 전월대비 보합·전년동월대비 4p 감소하였으며, 9월 BSI 전망은 전월대비 제조업 8p, 비제조업 5p 증가
- 제조업 업황BSI 전망(S.A.): ('26년 6월) 69 → (7월) 64 → (8월) 64 → (9월) 72
 - 비제조업 업황BSI 전망(S.A.): ('26년 6월) 66 → (7월) 67 → (8월) 70 → (9월) 75



자료: 기업경기조사, 한국은행

[인천광역시 부문별 기업경기실사지수]

	2026년					2026년			
	5월	6월	7월	8월		5월	6월	7월	8월
제조업 매출	93	90	91	83	제조업 내수판매	89	87	89	82
제조업 생산	91	91	93	92	제조업 수출	94	96	94	95
제조업 신규수주	90	81	81	81	제조업 원자재구입가격	157	151	144	141
제조업 채산성	62	62	67	64	제조업 자금사정	73	72	73	65
제조업 판매가격	107	102	96	100	비제조업 매출	71	78	73	88
제조업 제품재고	98	99	104	107	비제조업 채산성	74	77	78	86
제조업 설비투자	94	91	96	92	비제조업 인력사정	81	79	83	83
제조업 인력사정	93	91	97	97	비제조업 자금사정	78	81	79	81
제조업 가동률	95	96	94	88					

주 1) 본 BSI는 기업가의 경기에 대한 판단, 전망 등이 생산, 매출, 투자 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작성, 100보다 클 때는 긍정적 시각의 기업 수가 많고, 100보다 작을 때는 부정적 시각의 기업 수가 많음을 의미

2) 자료: 기업경기조사,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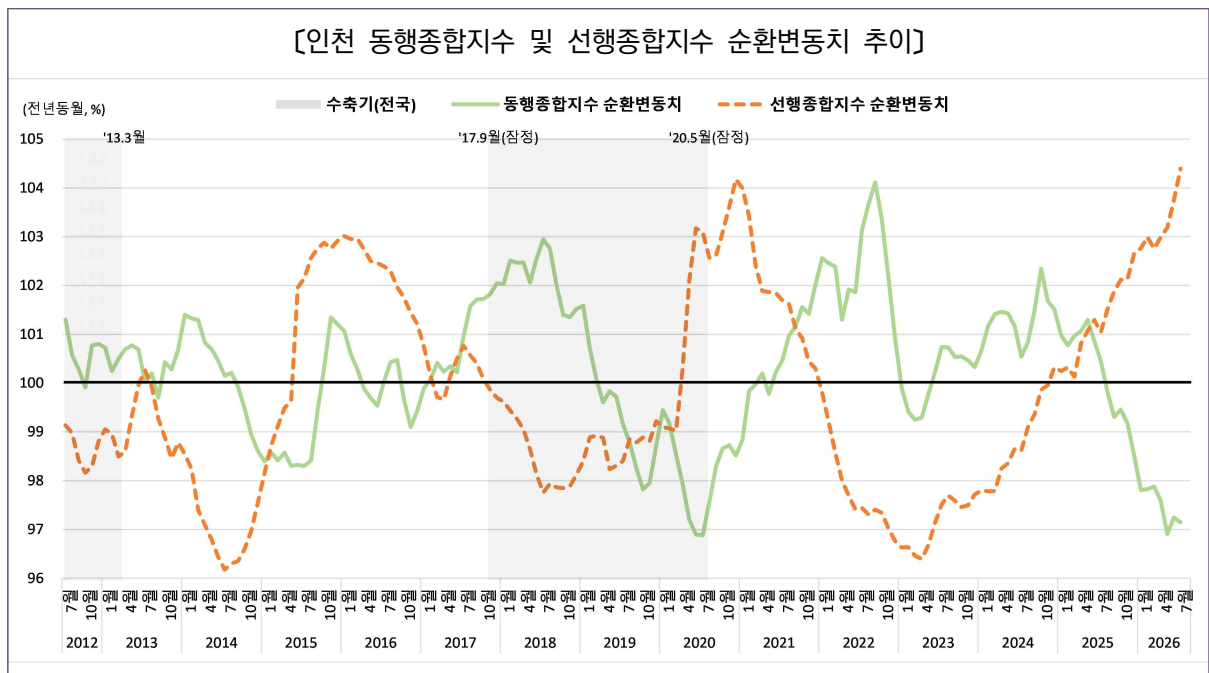
[인천광역시 제조업/비제조업 업황 실적 BSI]

기준=100 (전년동월, %)	2025년			2026년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제조업 업황	61 (△11.6)	66 (1.5)	68 (17.2)	68 (21.4)	59 (7.3)	64 (6.7)	63 (△3.1)	78 (21.9)	72 (12.5)	73 (17.7)	65 (1.6)
비제조업 업황	68 (△10.5)	65 (△12.2)	78 (11.4)	63 (△1.6)	72 (30.9)	65 (△1.5)	60 (△14.3)	64 (△12.3)	70 (4.5)	69 (0.0)	69 (△5.5)

자료: 기업경기조사, 한국은행

- '26.7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1p 하락하여 전년동월보다 3.3p 낮은 수준이며,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7p 상승하여 전년동월보다 3.4p 높은 수준
 - 동행·선행 순환변동치는 97.1·104.4, 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2%·0.7% 증가한 113.8·103.9 기록
 - 동행종합지수 구성지표 중 전력사용량,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아파트매매가격지수, 수입액은 전월대비 증가, 비농가취업자수, 산업생산지수, 컨테이너처리량, 수출액은 감소
 - 선행종합지수 구성 지표는 전월대비 수출입물가비율만 증가하였고, 신규구직자수, 재고순환지표, 자동차등록대수비율, 건축허가면적, 금융기관유동성, 장단기금리차는 감소
- 인천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의 반등 이후 다시 하락하여 현재 경기의 개선 흐름이 이어지지 못한 반면,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4개월 연속 상승하며 현재 경기와 향후 경기 신호 간 차이 확대
 - 두 순환변동치의 격차는 7.3p로 4개월 연속 확대되었으며, 선행지수가 기준선(100)을 웃도는 가운데 동행지수는 97.1로 여전히 밑도는 상태('26.3월 4.9p → 4월 5.4p → 5월 6.3p → 6월 6.5p)

* 2분기 이상 순환변동치가 증가하면 경기 확장기, 감소하면 경기 수축기로 판단(통계청 경기종합지수 해설 참고)



- 주 1) 2026년 1월을 기점으로 새로운 계절조정지수를 적용하여 과거 선행·동행 종합지수 및 순환변동치가 소폭 변경되었음
 2) 자료 : 인천경기종합지수 재구성, 인천연구원 (*연쇄지수 작성방법에 따라 가중치 변경 및 연간보정 반영으로 일부 시계열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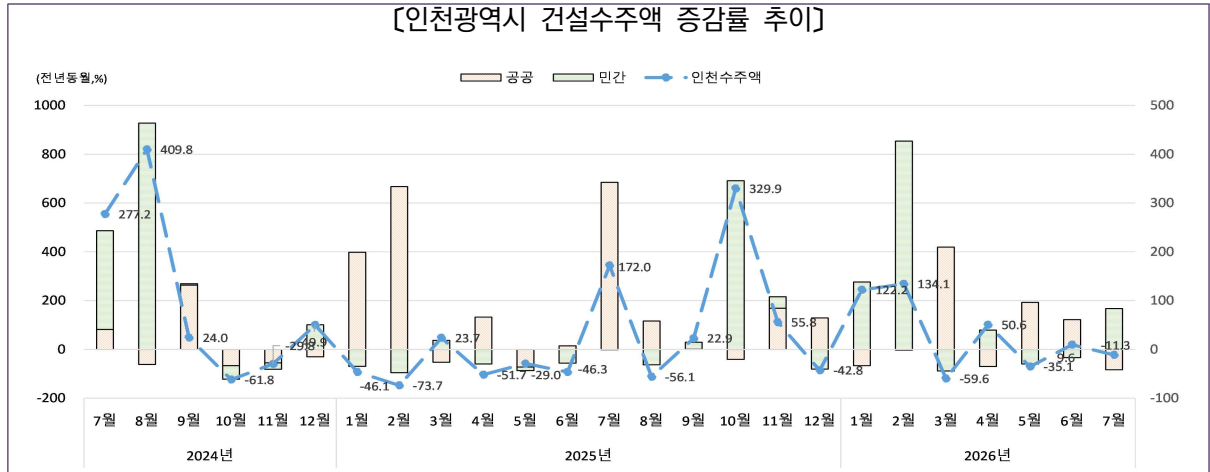
[인천광역시 경기종합지수]

2020=100	2025년				2026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 (전월차, p)	99.3 (△0.5)	99.5 (0.2)	99.2 (△0.3)	98.5 (△0.7)	97.8 (△0.7)	97.8 (0.0)	97.9 (0.1)	97.6 (△0.3)	96.9 (△0.7)	97.2 (0.3)	97.1 (△0.1)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 (전월차, p)	101.9 (0.4)	102.1 (0.2)	102.1 (0.0)	102.7 (0.6)	102.8 (0.1)	103 (0.2)	102.8 (△0.2)	103 (0.2)	103.2 (0.2)	103.7 (0.5)	104.4 (0.7)

- 주 1) 종합지수 산출시 사용하는 데이터의 변경과 추세 산출시 PAT법을 적용하는 관계로 종합지수가 변경될 수 있음
 2) 자료: 인천경제동향, 인천연구원

설비투자 증가·인천 민간 수주 회복에도 공공 수주 급감과 허가·착공 감소로 건설 부진

- '26.7월 전년동월대비 인천 발주자별 건설수주액은 공공 83.7% 감소, 민간 167.6%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11.3% 감소, 전월대비 공공은 81.0% 감소, 민간은 151.4%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19.2% 증가
- 전년동월 기준 공공 부문은 신규주택, 기타건축, 차산·차수 등 수주가 줄었고, 민간 부문은 신규주택, 공장·창고, 점포 등 수주가 늘었으며, 공종별로는 건축 부문 15.7% 증가, 토목 부문 91.8% 감소



자료 : 건축허가및통계, 국토교통부

- (전국) 기계류·운송장비 투자, 설비투자 증가폭 확대, 건축 공사실적 부진으로 건설기성은 감소세 지속
- 전년동월 기준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기계류(21.3%)와 기타운송장비 등 운송장비(32.7%) 투자가 늘며 설비투자(24.9%) 증가 폭이 확대됐으나, 건설기성은 토목(4.4%) 증가에도 건축(△5.5%) 부진으로 3.2% 감소하였고, 건설수주도 건축·토목이 모두 줄며 34.0% 감소

(p:잠정치)

전월비, % 전년동월비, %	전 국					
	설비투자	기계류	운송장비	기계수주	건설기성	건설수주
'26.6월p → 7월p	6.9 → 7.5 22.5 → 24.9	8.2 → 4.2 23.3 → 21.3	3.8 → 15.4 20.8 → 32.7	13.9 → △22.8 52.4 → 25.4	4.2 → △1.1 △4.3 → △3.2	△53.3 → 8.4 △17.8 → △34.0

[인천지역 건설동향]

(단위 : 천㎡, 억원, %, p는 잠정치)

		2024년	2025년	2026년					전월대비
		연간	연간	3월	4월	5월	6월p	7월p	
건축허가면적		7,342 (△25.0)	7,955 (8.3)	1,206 (207.2)	756 (△52.5)	431 (9.1)	590 (161.2)	376 (△8.6)	△36.3
건축착공면적		7,628 (44.5)	5,228 (△31.5)	535 (84.9)	1,006 (34.2)	537 (12.5)	586 (237.3)	67 (△79.2)	△88.5
건설수주액		126,207 (47.6)	104,705 (△17.0)	4,839 (△59.6)	10,269 (50.6)	4,271 (△35.1)	10,540 (9.6)	12,565 (△11.3)	19.2
발주	공공	15,103 (△11.9)	28,942 (91.6)	3,509 (419.0)	392 (△70.0)	1,852 (193.0)	5,995 (121.8)	1,139 (△83.7)	△81.0
	민간	111,104 (84.4)	72,818 (△34.5)	1,330 (△88.2)	9,876 (79.2)	2,418 (△59.4)	4,544 (△33.9)	11,426 (167.6)	151.4
공종	건축	93,292 (43.5)	83,760 (△10.2)	3,004 (△73.6)	9,602 (51.0)	3,945 (△37.8)	5,441 (△34.0)	12,272 (15.7)	125.5
	토목	32,914 (60.5)	20,945 (△36.4)	1,835 (214.2)	667 (44.1)	325 (34.3)	5,098 (273.5)	293 (△91.8)	△9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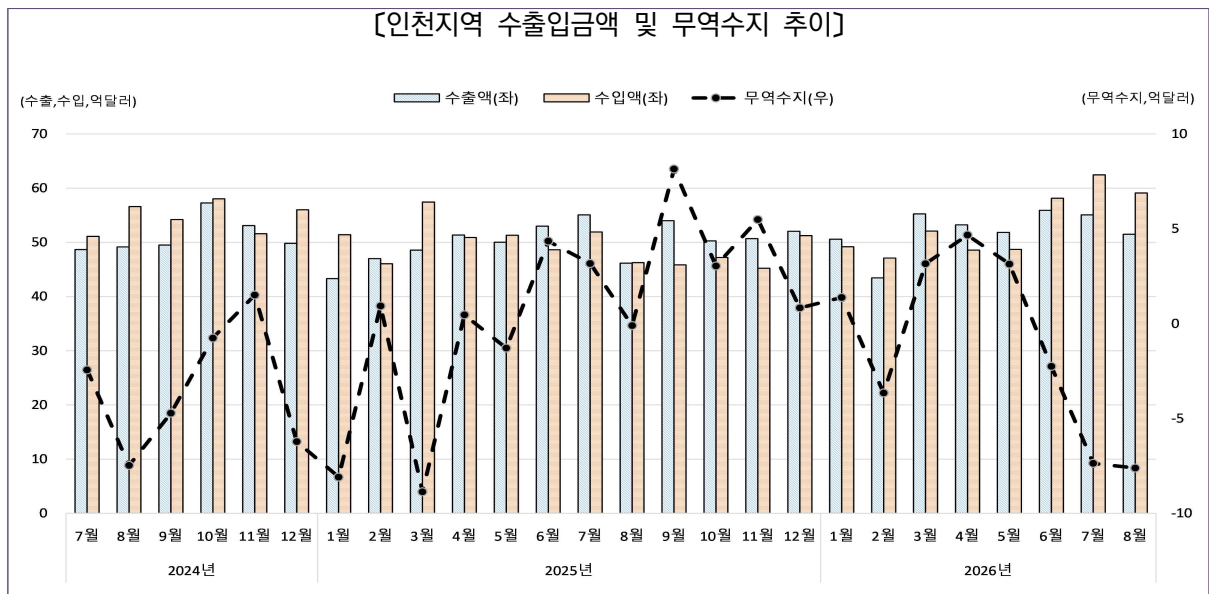
주 1) 건축허가면적, 건축착공면적의 () 연간 자료는 전년누계대비 증감률, 월간 자료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 건설수주액의 () 연간 자료는 전년대비 증감률, 월간 자료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3) 자료: (1) 건설경기동향조사, 통계청 (2) 건축허가 및 착공 통계, 국토교통부

반도체·의약품이 수출 증가를 이끌었으나 자동차는 감소하며 주력 품목별 흐름 차별화

- '26.8월 전년동월 기준 인천 수출액은 11.6% 증가했으나, 수입액이 27.8% 늘어 무역수지 적자 지속
 - 인천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32.3%)를 비롯해 의약품(31.1%), 비누치약및화장품(33.4%), 반도체 제조용장비(34.4%) 등이 늘며 자동차(△20.2%)와 무선통신기기(△26.4%) 등의 감소에도 전체 수출 증가
 - 천연가스(△30.6%) 수입은 줄었으나, 최대 수입 품목인 반도체(68.1%)와 원유(39.2%), 석탄(145.1%) 등이 늘며 인천 전체 수입액은 3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두 자릿수 증가
 - 수출액은 51.49억 달러, 수입액은 59.10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7.6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여 전월보다 적자 폭이 0.2억 달러 확대



자료 : 무역통계(K-stat), 한국무역협회

- (전국) 반도체·컴퓨터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8월 수출은 3개월 연속 900억 달러 상회
 - 전년동월대비 전국 수출액은 68.7% 증가한 982.5억 달러, 수입액은 22.5% 증가한 635.1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무역수지는 347.5억 달러 흑자로 전년동월대비 283.4억 달러 확대
 - 20대 주력 수출품목 중 14개(반도체 209.0%, 컴퓨터 419.5% 등)와 9대 시장 중 7개 지역에서 증가하였고, 반도체 수출이 466.5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1~8월 누적 무역수지는 2,025억 달러 흑자

[인천지역 수출입현황]

역달리 (전년동월%)	2024 연간	2025 연간	2026년					전월대비(%) 전월차 (무역수지)
			4월	5월	6월	7월	8월	
수출액	595.24 (10.6)	601.52 (1.1)	53.22 (3.6)	51.84 (3.6)	55.90 (5.5)	55.07 (0.0)	51.49 (11.6)	△6.5
수입액	637.68 (5.6)	593.46 (△6.9)	48.55 (△4.6)	48.70 (△5.1)	58.14 (19.5)	62.44 (20.3)	59.10 (27.8)	△5.3
무역수지	△42.44	8.06	4.7	3.1	△2.2	△7.4	△7.6	△0.2

주 1) () 는 연간자료는 전년대비, 월간자료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 자료: 무역통계(K-stat), 한국무역협회

- '26.8월 주요 수출품 중 자동차(△20.2%), 무선통신기기(△26.4%) 등은 감소했으나 반도체·의약품 등의 증가로 전체 수출이 11.6% 늘었으며, '26년 1~8월 누계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5.7% 증가
- 수출액 기준 상위 5개 품목은 반도체(32.3%), 의약품(31.1%), 자동차(△20.2%), 철강판(3.7%), 비누치약및화장품(33.4%) 순으로 나타남

[인천지역 수출품목별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품목	2025.8월		2026.8월		2026년 누계(1월~8월)	
		금액	전년동월비	금액	전년동월비	금액	증감률
	총계	4,616	△6.1	5,149	11.6	41,682	5.7
1	반도체	1,551	2.1	2,053	32.3	12,479	4.4
2	의약품	458	△16.1	600	31.1	5,271	24.5
3	자동차	437	18.0	349	△20.2	5,035	2.9
4	철강판	228	△11.5	236	3.7	1,634	△9.0
5	비누치약및화장품	142	8.2	189	33.4	1,595	32.5
6	무선통신기기	143	△49.0	105	△26.4	1,150	△9.3
7	반도체제조용장비	74	△11.5	99	34.4	686	△9.5
8	금은및백금	33	114.3	89	169.1	994	348.4
9	자동차부품	83	△1.2	75	△9.4	694	△4.3
10	기구부품	82	△5.9	72	△12.3	584	△1.2

자료 : 무역통계(K-stat), 한국무역협회

- '26.8월 인천지역 수출액 기준 상위 5개국은 중국, 베트남, 미국, 대만, 싱가포르 순으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15.2%, 15.8%, 18.3%, 29.4%, 7.8% 증가

[인천지역 국가별 수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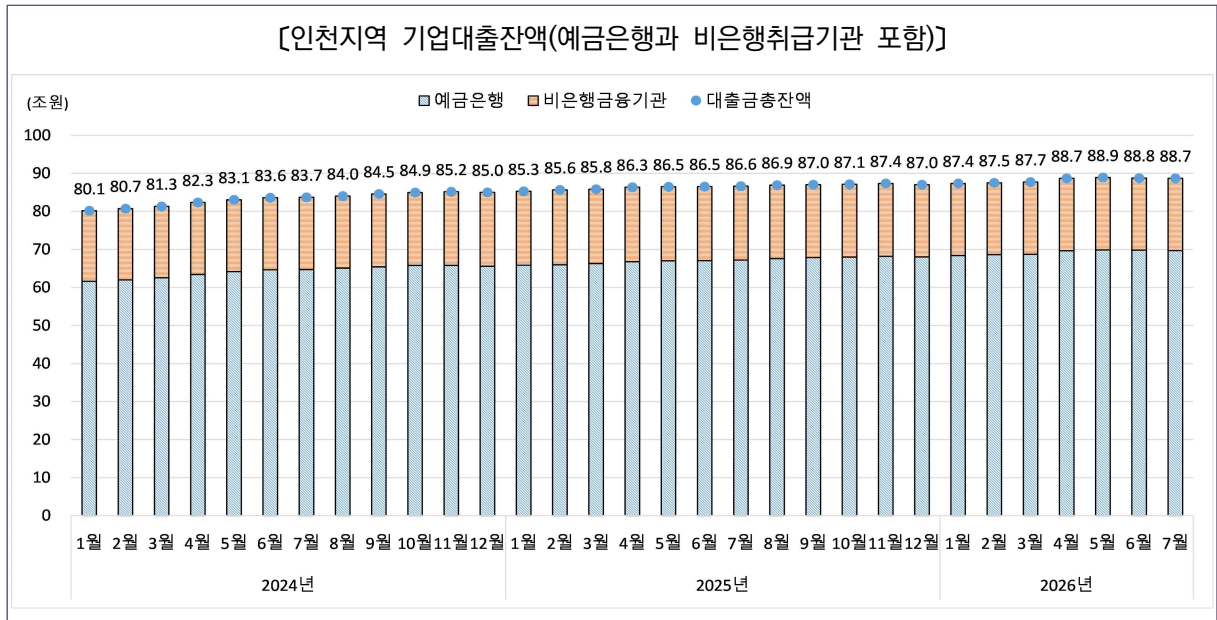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국가명	2025.8월		2026.8월		2026년 누계(1월~8월)	
		금액	전년동월비	금액	전년동월비	금액	증감률
	총계	4,616	△6.1	5,149	11.6	41,682	5.7
1	중국	995	△32.5	1,146	15.2	8,232	1.0
2	베트남	688	66.5	797	15.8	5,980	19.6
3	미국	487	△23.3	576	18.3	6,730	6.7
4	대만	359	41.5	465	29.4	2,148	△26.6
5	싱가포르	234	28.1	252	7.8	1,654	15.4
6	홍콩	97	△24.3	213	119.2	2,119	96.5
7	인도(인디아)	135	△5.0	126	△6.8	1,126	△0.9
8	스위스	161	335.0	107	△33.6	1,034	31.5
9	네덜란드	57	55.7	106	84.9	834	53.6
10	일본	102	△19.1	100	△1.2	988	7.0

자료 : 무역통계(K-stat), 한국무역협회

기업대출 연체율 4개월 연속 상승하며 상승 폭 확대, 대기업 중심으로 대출잔액 감소

- '26.7월 인천시 기업 대출잔액은 88조 6,943억 원, 전년동월대비 2.40% 증가, 전월대비 0.07% 감소
 - 전월 기준 기업 대출잔액은 예금은행(△0.2%)은 줄고 비은행(0.3%)은 늘었으며,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975억 원 증가했으나 대기업이 1,603억 원 감소하여 전체 잔액은 628억 원 축소
 - 대기업 대출잔액은 전년동월대비 6.34% 증가, 전월대비 1.97% 감소하여 7조 9,684억 원을 기록
 - 중소기업 대출잔액은 80조 7,259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02%, 전월대비 0.12% 증가



자료 : 통화금융통계, 한국은행

- '26.7월 인천시 어음부도율은 전월대비 0.20%p 하락, 기업대출 연체율은 0.40%로 0.06%p 상승
 - 기업대출 연체율은 '26.3월 0.29%에서 4월 0.30%, 5월 0.32%, 6월 0.34%, 7월 0.40%로 4개월 연속 상승하였으며, 전월대비 상승 폭도 6월 0.02%p에서 7월 0.06%p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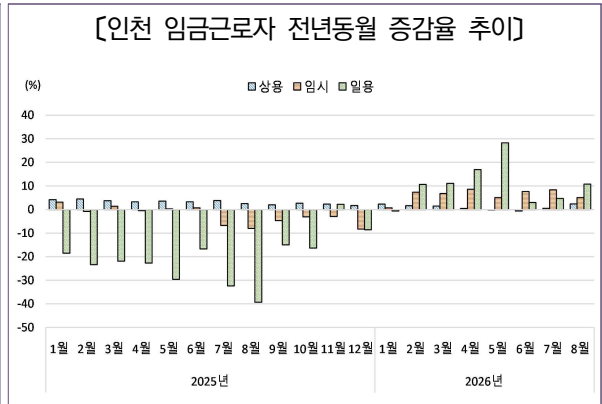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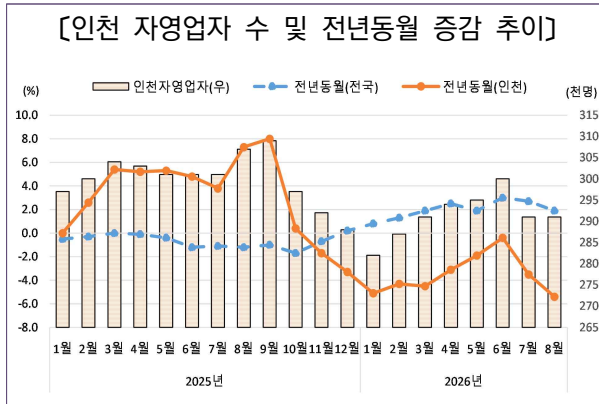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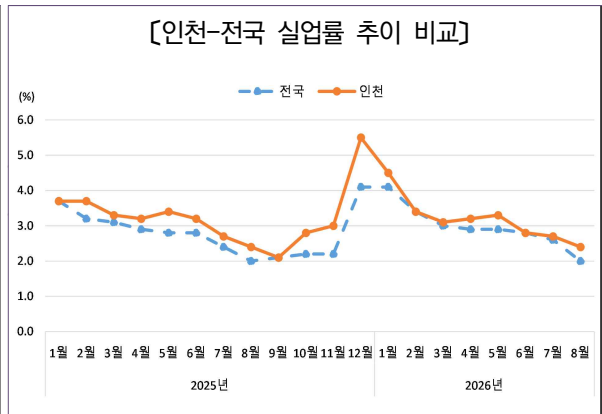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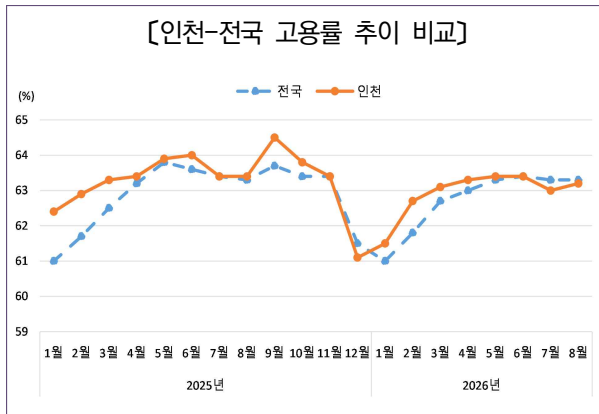
[인천지역 기업대출잔액 지표]

사업원 (전년동월, %)		2024 연간	2025 연간	2026년					전월대비(%) 전월차(%p)
				3월	4월	5월	6월	7월	
예금은행	전체	65,595 (6.6)	68,014 (3.7)	68,743 (3.7)	69,634 (4.3)	69,875 (4.3)	69,801 (4.1)	69,682 (3.7)	△0.2
	중소기업	59,536 (5.8)	61,394 (3.1)	61,912 (2.9)	62,166 (2.9)	62,468 (3.3)	62,620 (3.5)	62,697 (3.5)	0.1
비은행 취급기관	전체	19,391 (4.9)	18,986 (△2.1)	18,959 (△3.0)	19,057 (△2.6)	19,012 (△2.5)	18,956 (△2.6)	19,012 (△2.2)	0.3
	중소기업	18,659 (5.6)	18,110 (△2.9)	18,115 (△3.2)	18,110 (△3.1)	18,082 (△3.0)	18,008 (△3.4)	18,029 (△2.8)	0.1
어음 부도율	인천	0.25	0.19	0.66	7.82	0.26	0.2	0	△0.2
기업대출 연체율	인천	0.27	0.29	0.29	0.3	0.32	0.34	0.40	0.06

- 주 1)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 비은행취급기관은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기타
 3) 자료 : 통화금융통계, 한국은행

임금근로자는 상용·임시·일용직 모두 증가. 자영업자는 전년동월대비 감소 폭 확대

- '26.8월 인천시 고용률은 63.2%(전국 63.3%)로 전년동월대비 0.2%p 감소, 전월대비 0.2%p 증가, 실업률은 2.4%(전국 2.0%)로 전년동월대비 보합, 전월대비 0.3%p 감소
 - 남성 고용률은 전월대비 0.7%p 증가한 71.9%를 기록, 여성 고용률은 54.7%로 전월대비 0.3%p 감소
- 인천시 임금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3.2% 증가, 자영업자는 전년동월대비 5.4% 감소
 - 임금근로자는 전년동월 기준 상용직(2.4%)·임시직(5.1%)·일용직(10.8%)이 모두 늘었고, 자영업자는 290.7천 명으로 전월대비 0.1% 감소하며 2개월 연속 줄어든 가운데 전년동월대비 감소 폭도 확대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인천지역 고용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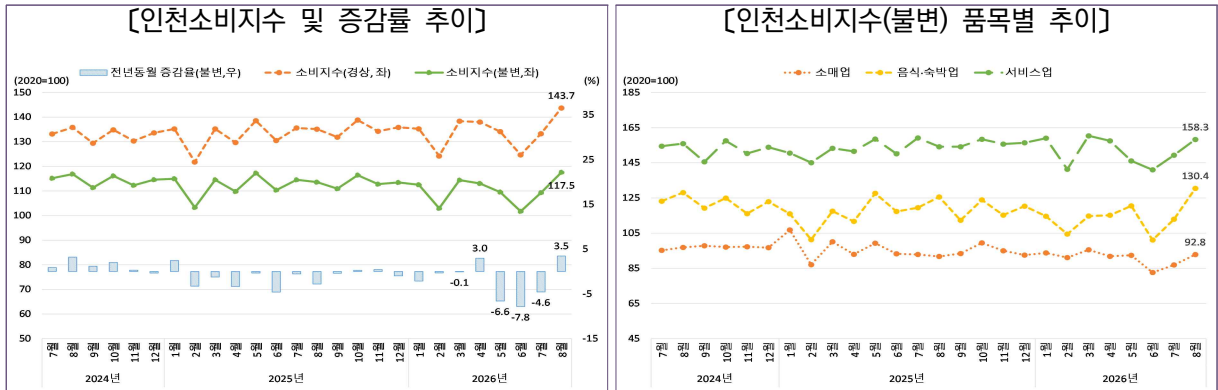
% (전년동월차,%p)	2024 연간	2025 연간	2026년						전월차 (%p)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고용률	63.5 (0.4)	63.3 (△0.2)	63.1 (△0.2)	63.3 (△0.1)	63.4 (△0.5)	63.4 (△0.6)	63 (△0.4)	63.2 (△0.2)	0.2
남자	72 (△0.3)	72.3 (0.3)	72 (0.0)	72.2 (0.1)	71.9 (△1.1)	72.5 (△0.4)	71.2 (△1.2)	71.9 (△1.1)	0.7
	55.2 (1.1)	54.4 (△0.8)	54.3 (△0.5)	54.6 (△0.2)	55.1 (0.2)	54.5 (△0.9)	55 (0.5)	54.7 (0.7)	△0.3
실업률	3.3 (0.1)	3.2 (△0.1)	3.1 (△0.2)	3.2 (0.0)	3.3 (△0.1)	2.8 (△0.4)	2.7 (0.0)	2.4 (0.0)	△0.3

주 1) 증감은 소수점 한자리 수에서 반올림, 연간자료는 전년대비

2)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소비지수가 4개월 만에 증가로 돌아섰으나 소비심리는 제자리에 머물며 회복 신호는 제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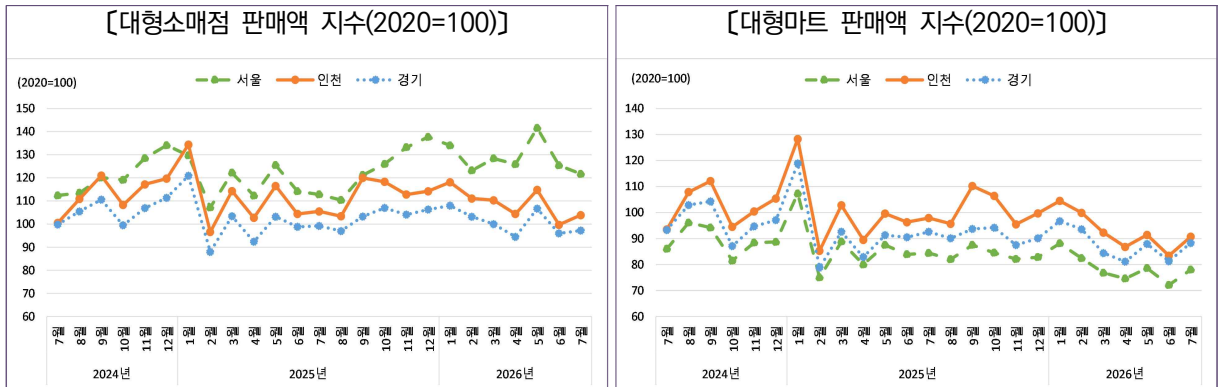
- '26.8월 인천소비지수(불변)는 전년동월대비 3.5%, 전월대비 7.5% 증가하여 117.5를 기록
 - 품목별 지수는 전년동월 기준 음식·숙박업(3.9%), 서비스업(2.7%), 소매업(1.2%)이 모두 증가했으며, 전월대비로도 음식·숙박업(15.5%), 소매업(6.8%), 서비스업(6.0%) 전 부문이 증가



주) 2026.7.1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과거 전 기간을 새 행정구역 기준으로 재집계

자료 : 신용/체크카드 결제 정보, 신한카드

- '26.7월 인천 대형소매점·대형마트는 전월대비 모두 늘었으나 전년동월대비로는 감소세가 이어짐
 - '26.7월 인천 대형소매점은 전년동월대비 1.5%, 대형마트는 7.4% 감소했으나 전월대비로는 각각 4.2%, 8.8% 증가하였고, 전년동월 감소 폭은 6월(△4.5%, △13.4%)보다 축소
 - 전년동월 기준 수도권 대형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서울(7.9%)만 늘고 인천(△1.5%)·경기(△2.0%)는 줄었으며, 대형마트 판매액 지수는 서울(△7.6%), 인천(△7.4%), 경기(△4.6%) 세 시도 모두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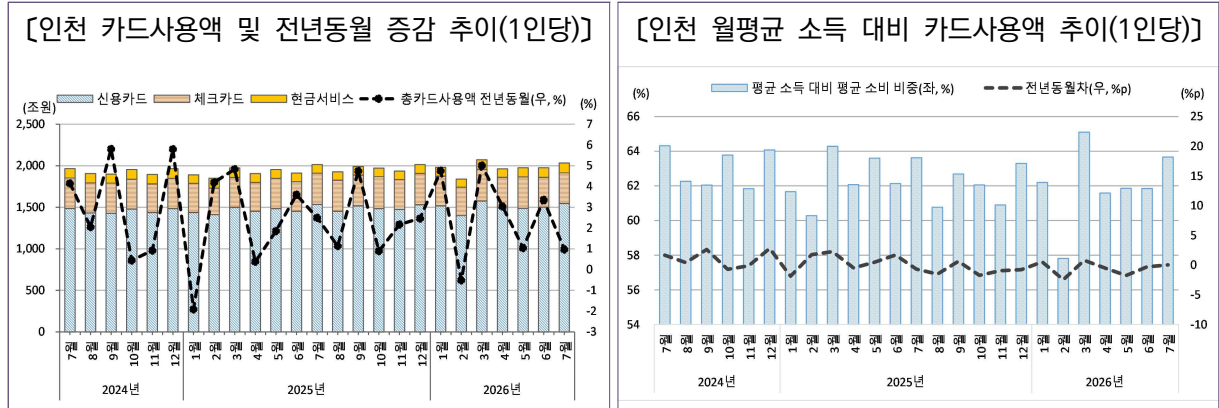
자료 : 서비스업동향조사, 통계청 (* 매월 발표되는 지수는 잠정치(p)로 2개월 후에 확정)

- '26.8월 인천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과 같은 106.0을 기록
 - 인천 소비자심리지수 구성지수 기여도는 생활형편전망(1.4p)·현재생활형편(0.2p)이 지수를 끌어올렸으나, 향후경기전망(△0.7p), 현재경기판단(△0.5p), 가계수입전망(△0.4p)이 같은 폭으로 끌어내리며 상쇄

(전년동월, p)	2025년	2026년								전월대비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인천 소비자 심리지수	109.9 (25.6)	109.0 (22.3)	111.5 (21.3)	107.9 (18.7)	97.6 (9.2)	105.0 (7.5)	108.0 (5.0)	106.0 (△0.4)	106.0 (△4.5)	0.0

- 주 1) 소비자심리지수 100은 표준화구간(2003~2021년) 중 장기평균을 의미
 2) 소비자심리지수가 100보다 크면(작으면) 평균적인 경기상황보다 나음(나쁨)을 의미
 3) 자료: 소비자동향조사(소비자심리지수), 한국은행

- '26.7월 전년동월 기준 1인당 카드 총소비액은 1.0% 증가, 1인당 월평균 소득은 0.9% 증가하여 1인당 월평균 소득 대비 카드사용액 비중의 차는 전년동월대비 0.03%p 확대
- 세부적으로는 전년동월 기준 신용카드(0.7%)와 현금서비스(15.1%)가 증가, 체크카드(△1.9%)는 감소



자료 : 신용융합정보, KCB(p.13 참조)

- 전년동월 기준 6개 업종에서 성장세를 보였고, 1개 업종이 주의, 4개 업종이 위기를 기록
- 성장 업종은 자동방문판매등(50.67%)·SSM(33.83%) 등 6개, 주의 업종은 숙박(△9.00%), 위기 업종은 기타소매(△10.47%), 가전가구(△13.34%), 대형종합소매(△20.38%), 문화관광(△30.23%)으로 구성

[인천지역 업종별 소비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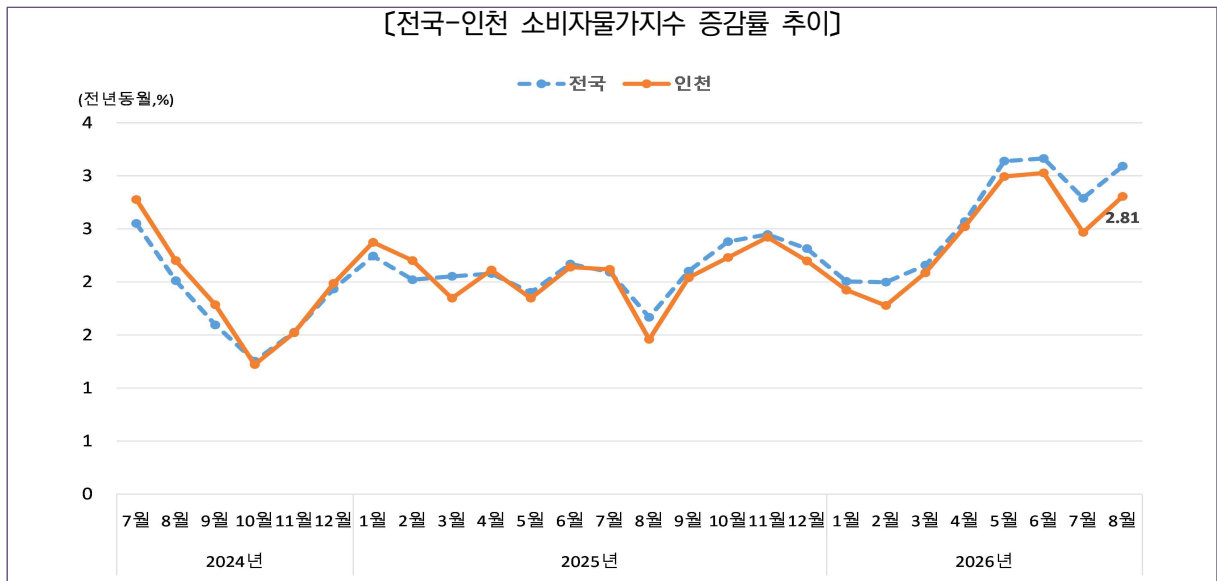
(단위 : 억 원, %)

순위	업종*	'25.6월 ~ '25.8월		'26.6월 ~ '26.8월		'26년 누계(1월~8월)	
		합계	전년동월비	합계	전년동월비	합계	전년대비
	총계	63,742	△0.20	63,474	△0.42	169,819	0.73
1	자동방문판매등	249	3.77	375	50.67	939	37.36
2	SSM	416	△17.47	557	33.83	1,508	31.8
3	자동차기계장비	9,337	△3.49	10,531	12.79	26,256	7.87
4	교통운송	332	△40.45	374	12.5	976	△6.6
5	인테리어	671	0.79	727	8.24	1,846	8.46
6	보건의료	9,962	6.17	10,628	6.69	28,271	8.28
7	농수축협	114	1.77	117	2.41	289	2.72
8	교육	2,813	8.00	2,861	1.69	7,645	3.32
9	식품류판매	3,545	6.09	3,585	1.15	9,846	2.50
10	의류잡화	1,416	9.09	1,415	△0.07	3,843	6.54
11	편의점	3,243	△1.08	3,239	△0.12	8,175	0.52
12	주점	337	△2.19	335	△0.58	887	△0.95
13	생활서비스·금융·정보통신	1,547	4.49	1,526	△1.37	4,109	0.48
14	식음료점	13,525	△0.12	13,183	△2.53	34,800	0.3
15	스포츠시설	1,267	△1.83	1,229	△2.96	3,036	△0.27
16	슈퍼	3,604	△2.91	3,462	△3.94	9,047	△5.15
17	PC방·노래방	397	△3.72	381	△4.12	1,016	△2.81
18	여가오락	702	△6.25	672	△4.23	1,887	△0.88
19	숙박	568	△6.98	517	△9.00	1,298	△6.1
20	기타소매	1,743	△2.13	1,561	△10.47	5,983	△7.09
21	가전가구	993	△4.58	861	△13.34	2,029	△19.82
22	대형종합소매	4,904	△10.98	3,905	△20.38	11,621	△15.13
23	문화관광	2,056	18.17	1,435	△30.23	4,513	△14.45

* 업종별 세부 분류는 부록 참고. : 성장(5%~). : 과감(△5%~5%) : 주의(△10%~△5%). : 위기(△~△10%). 자료 : 카드결제정보, 신한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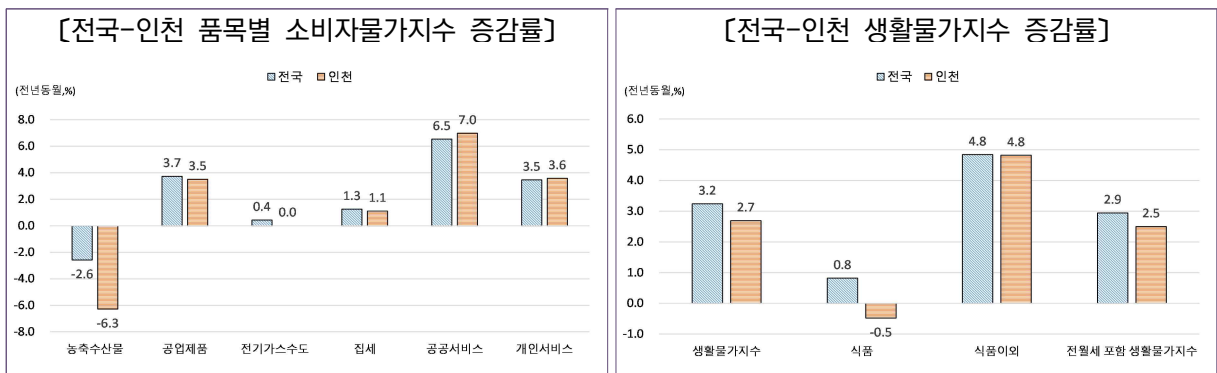
농축수산물 가격 하락에도 지난해 낮았던 공공서비스 요금의 기저효과로 물가 상승률 재확대

- 농축수산물 하락으로 상품 물가 오름세는 둔화되었으나, 전년 통신요금 할인의 기저 영향으로 공공서비스가 크게 오르며 인천과 전국 모두 물가 상승률이 전월보다 확대
 - '26.8월 전년동월대비 인천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은 2.81%로 전월 증가율 대비 0.34%p 확대되었으며, 전국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도 전월대비 0.30%p 상승하여 3.09%를 기록
 - 전년동월대비 농산물($\Delta 10.13\%$)의 하락 폭 확대, 축산물($\Delta 2.67\%$) 하락 전환으로 수산물(0.82%) 상승 전환에도 농축수산물($\Delta 6.28\%$) 내림세가 깊어졌고, 석유류(14.13%) 오름 폭도 줄며 공업제품(3.51%)이 전월 수준에 머물러 상품 물가는 전월대비 0.75%p 하락한 1.40%를 기록
 - 서비스 품목에서는 집세(1.11%)와 개인서비스(3.58%)가 오름세를 이어갔고, '25.8월 통신요금 할인 기저효과로 공공서비스(6.98%)가 5.53%p 오르며, 서비스 물가는 전월대비 1.23%p 오른 3.95%를 기록



자료 : 소비자물가조사,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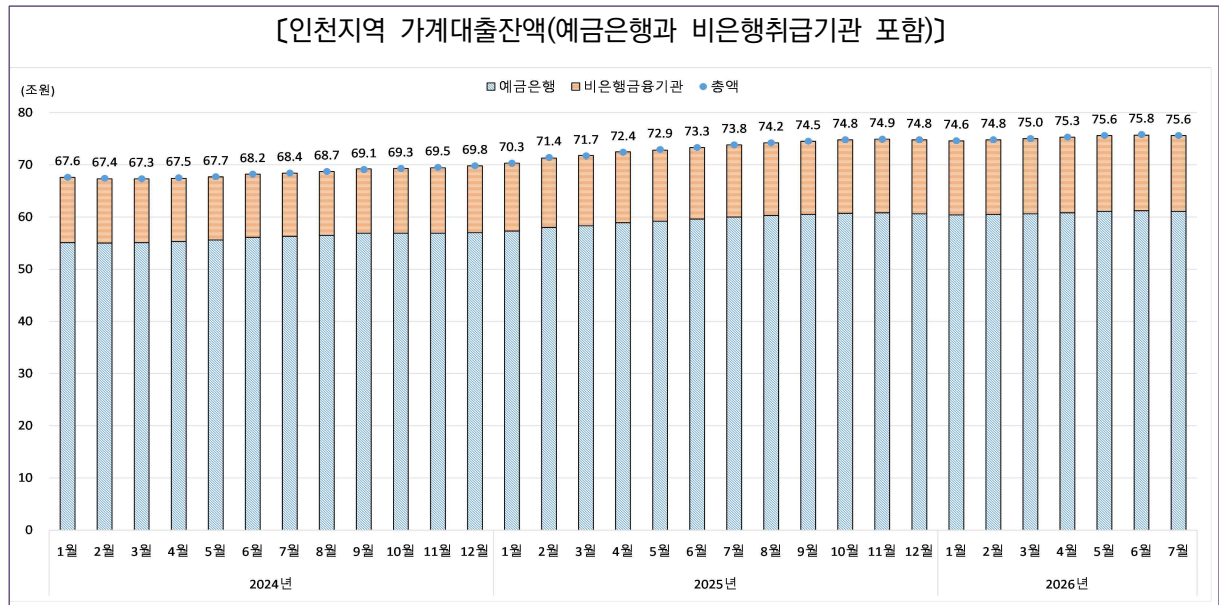
- '26.8월 인천시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2.69%, 전월대비 0.02% 상승하여 122.14를 기록
 - 품목별 생활물가는 전년동월 기준 식품은 0.5% 감소했고, 식품 이외 4.8%, 전월세 포함 2.5% 증가
 - 인천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전국보다 0.55%p 낮았으며, 세부적으로 식품($\Delta 1.30\%$ p), 전월세 포함($\Delta 0.44\%$ p), 식품 이외($\Delta 0.02\%$ p) 모두 전국을 밑돈 가운데 식품에서 격차가 가장 큼



자료 : 소비자물가조사, 통계청

주택담보대출 감소로 가계대출 잔액이 6개월 만에 감소했고, 신규 약정 규모도 2개월 연속 축소

- '26.7월 총대출잔액은 75조 6,060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4% 증가, 전월대비 0.2% 감소
 - 전년동월 기준 예금은행은 주택담보대출(1.6%)과 기타대출(2.8%)이 나란히 증가했고, 비은행금융기관은 주택담보대출(13.0%)만 늘고 기타대출(△4.3%)은 줄어듦
 - 전월 기준으로는 예금은행이 1,170억 원, 비은행이 330억 원 줄었고, 감소분의 대부분(1,340억 원)은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에서 발생했으며, 비은행 주택담보대출도 '24.3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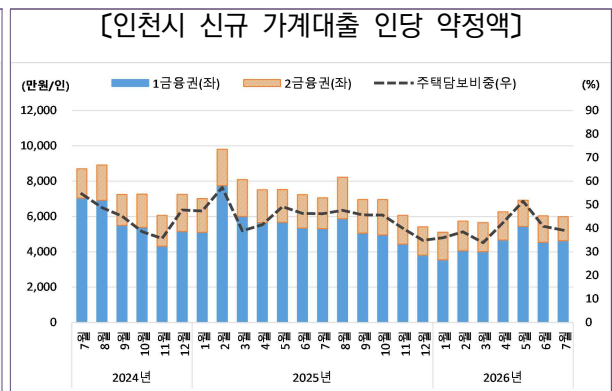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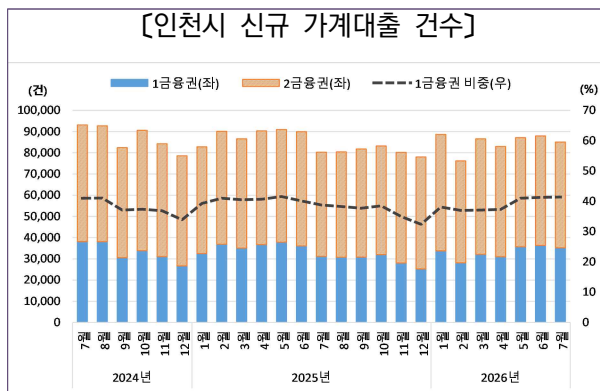
자료 : 통화금융통계, 한국은행

[인천지역 가계대출잔액 지표]

십억원 (전년동월비, %)	2024 연간	2025 연간	2026년					전월대비(%) 전월차(%p)
			3월	4월	5월	6월	7월	
예금은행	56,965 (3.6)	60,581 (6.3)	60,571 (4.0)	60,786 (3.3)	61,054 (3.1)	61,217 (2.6)	61,100 (1.8)	△0.2
주택담보 대출	48,942 (5.4)	52,639 (7.6)	52,705 (4.5)	52,894 (3.7)	53,067 (3.3)	53,163 (2.7)	53,029 (1.6)	△0.3
기타대출	8,023 (△6.2)	7,942 (△1.0)	7,866 (0.8)	7,892 (0.5)	7,987 (1.9)	8,054 (2.5)	8,071 (2.8)	0.2
비은행 취급기관	12,835 (1.7)	14,203 (10.7)	14,410 (6.9)	14,518 (7.0)	14,540 (6.5)	14,539 (6.1)	14,506 (5.3)	△0.2
주택담보 대출	6,416 (21.6)	8,116 (26.5)	8,392 (16.4)	8,533 (16.3)	8,583 (15.4)	8,632 (14.5)	8,616 (13.0)	△0.2
기타대출	6,420 (△12.5)	6,087 (△5.2)	6,018 (△4.0)	5,986 (△4.1)	5,957 (△4.1)	5,907 (△4.1)	5,891 (△4.3)	△0.3
연체율 (%)	국내은행 가계대출 0.23	0.22	0.27	0.27	0.29	0.29	0.29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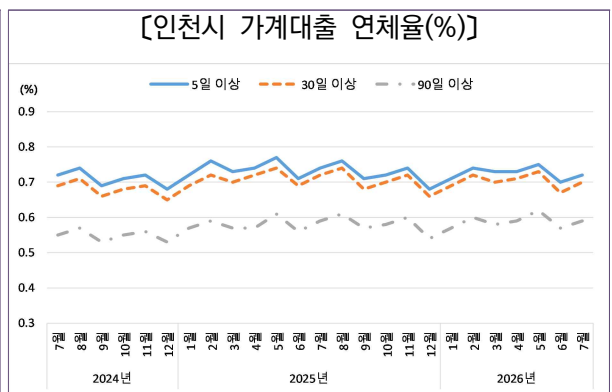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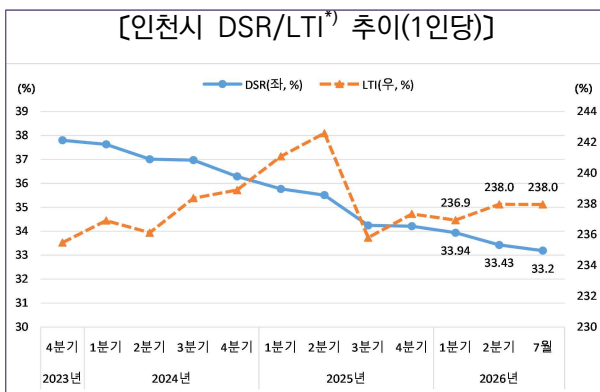
주 1) 비은행취급기관은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기타
2) 자료: 통화금융통계, 한국은행

- '26.7월 가계대출 신규 건수는 1·2금융권이 모두 전월대비 줄었으나 전년동월대비로는 늘었고, 1인당 신규 약정액은 2금융권을 중심으로 감소하며 주택담보대출 비중도 2개월 연속 하락
 - '26.7월 가계대출 신규 건수는 1금융권 3만 5,256건, 2금융권 4만 9,835건이며, 전월대비 1금융권 3.0% 감소·2금융권 3.4% 감소, 전년동월대비 1금융권 13.2% 증가·2금융권 1.5% 증가
 - '26.7월 1인당 신규대출 약정액은 5,991만 원이며, 1금융권 약정액은 2금융권의 약 3.39배로 전월(3.05배)보다 격차가 벌어졌고, 1금융권 4,627만 원, 2금융권 1,364만 원으로 구성
 - 1인당 약정액은 전년동월 기준 1금융권 12.9%, 2금융권 21.6%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15.0% 감소하였고, 전월 기준 1금융권 1.8% 증가·2금융권 8.4%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0.7% 감소
 - 신규 가계대출의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39.2%로 전월대비 1.7%p, 전년동월대비 7.0%p 축소



자료 : 신용융합정보, KCB¹⁾

- '26.7월 인천시 차주의 DSR은 하락세를 이어갔고 LTI는 전월 수준을 유지했으며, 연체율은 전월대비 올랐으나 전년동월보다는 낮은 2.01%를 기록
 - '26.7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25.3분기 대비 1.06%p, '26.2분기 대비 0.24%p 하락한 33.19%로, 집계가 시작된 '23.3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
 - '26.7월 인천시 연체율은 2.01%로 전년동월대비 0.04%p 감소, 전월대비 0.07%p 상승
 - 채권의 부실화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연체 기간별 연체율을 살펴보면, 5일 이상 0.72%, 30일 이상 0.70%, 90일 이상 0.59%로, 전월에 비해 각각 0.02~0.03%p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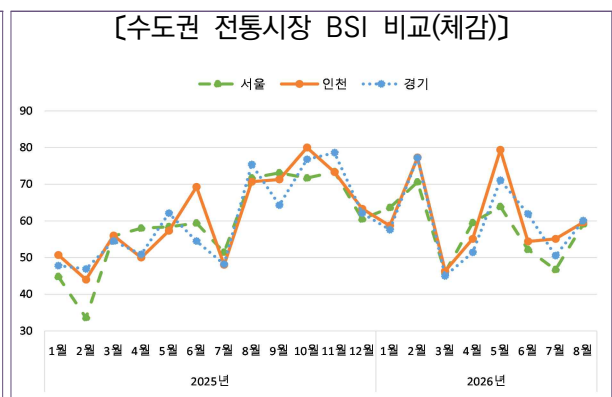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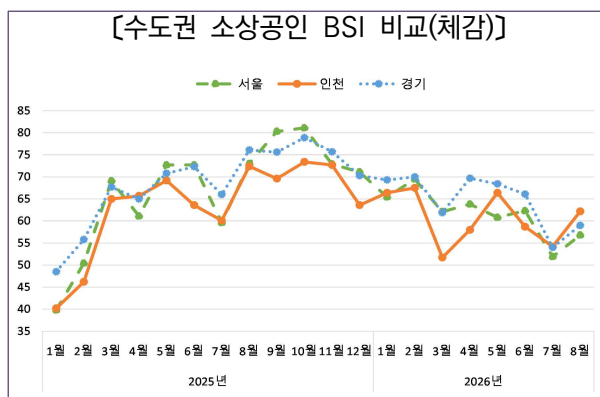
^{*}) KCB 자료를 활용하여 직접 산출

자료 : 신용융합정보, KCB

1) 인천연구원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는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시도별 가계신용 집계자료 구매계약을 통해 동 자료를 동향 작성 및 연구 분석에 활용하고 있음. KCB 자료는 통계청·한국은행의 가계대출 통계와 조사방식, 포괄범위 등이 달라 통계값에 차이가 존재

소상공인·전통시장 체감경기가 함께 반등했고 9월 전망은 성수기 기대로 큰 폭 상승

- '26.8월 인천 소상공인 체감 BSI는 매출 증대와 성수기를 호전 요인으로 든 응답이 늘며 3개월 만에 상승하였고, 9월 전망 BSI도 성수기를 기대하는 응답이 확산되며 기준선(100)에 근접
 - '26.8월 인천의 소상공인 체감 BSI는 전월대비 14.8% 증가(전년동월 △14.1%)하여 62.2를 기록하였고, '26.9월 전망 BSI는 96.2로 전월보다 42.5% 증가(전년동월 13.7%)
- 인천 전통시장은 '26.8월 체감 BSI가 2개월 연속 올랐고, 9월 전망 BSI는 수도권 세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기준선(100)을 넘어섬
 - '26.8월 인천의 전통시장 체감 BSI는 59.6으로 전월대비 8.2% 증가(전년동월 △15.7%), '26.9월 전망 BSI는 106.6으로 전월대비 59.3% 증가(전년동월 28.9%)



자료 : 소상공인시장경기동향조사, 중소벤처기업부

〔전국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BSI 지표〕

	소상공인					전통시장			
	2026년					2026년			
	5월	6월	7월	8월		5월	6월	7월	8월
BSI	67.9	63.6	55.6	60.6	BSI	70.7	59.8	50.5	57.0
제조업	70.9	61.9	51.5	65.4	농산물	66.9	55.1	51.3	59.6
소매업	76.5	67.0	60.6	59.0	축산물	85.6	68.9	66.1	65.0
음식점	68.0	65.4	54.7	60.7	수산물	62.1	54.0	42.2	54.7
부동산	58.0	68.9	49.3	60.5	가공식품	68.9	56.8	43.9	63.5
전문 과학기술	67.2	62.5	47.7	59.4	의류, 신발	84.7	66.1	48.6	46.0
교육 서비스	78.9	95.3	76.6	71.9	가정용품	68.4	64.1	43.2	44.9
스포츠 및 오락	59.4	53.3	58.5	66.4	음식점	67.6	55.1	56.2	63.2
수리업	64.0	59.3	52.8	56.7	기타 소매업	67.9	62.9	54.7	58.5
개인 서비스	65.3	57.4	53.6	56.4					

주 1) BSI(Business Survey index): 현재 경기수준에 대하여 소상공인 9개 업종, 전통시장 8개 업종의 체감지수, 전화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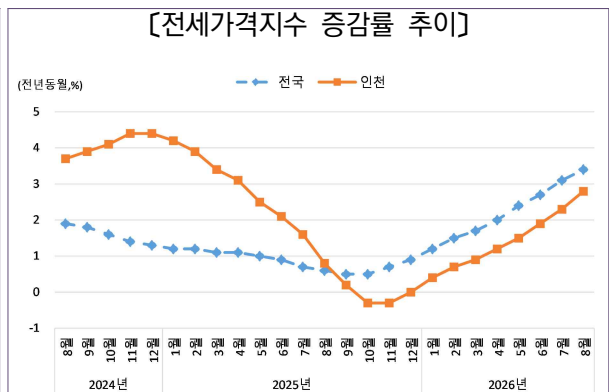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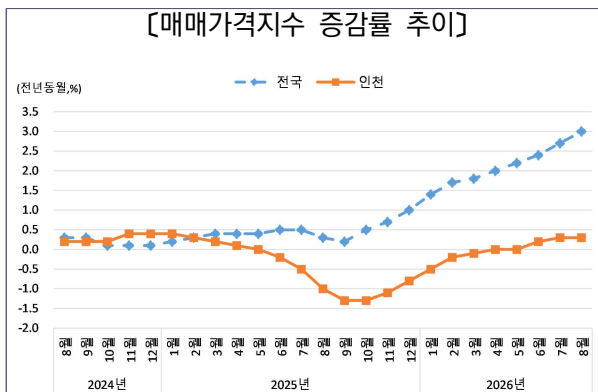
2) BSI 조사업체: 2,400개 소상공인 및 1,300개 전통시장

3) BSI 100이상은 경기 호전, 100미만은 경기 악화

4) 자료: 소상공인시장경기동향조사, 중소벤처기업부

매매가격은 전월대비 하락 전환한 반면, 전세는 가격과 수요가 함께 오르며 전세 우위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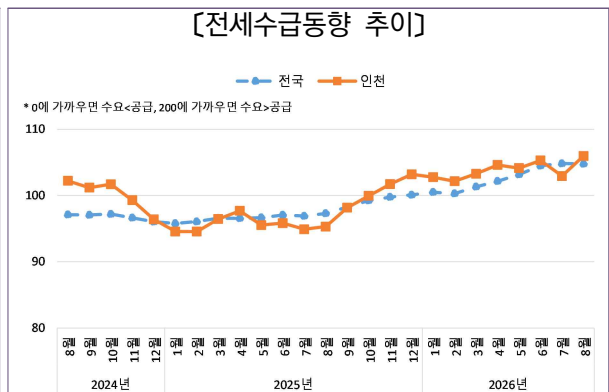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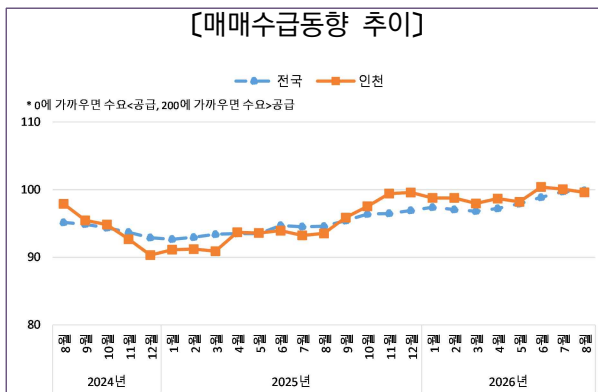
- 인천 주택시장은 전세가격이 아파트를 중심으로 오름폭을 키운 반면 매매가격은 전월대비 하락 전환했고, 연립은 매매 하락이 이어지며 유형에 따라 방향이 갈림
 - '26.8월 인천 매매가격지수는 전년동월대비 0.34% 상승, 전월대비 0.03% 하락(전국 3.0%, 0.32%), 전세가격지수는 2.82%, 0.41% 상승(전국 3.4%, 0.35%)
 - 유형별 전년동월대비 매매가격은 단독(1.09%), 아파트(1.03%) 상승, 연립(△1.18%)은 하락하였고, 전세가격 역시 아파트(4.37%)와 단독(0.71%)은 올랐으나 연립(△0.42%)만 내림세를 이어감



주 1) 지수 기준시점 변경(월간 2026.06=100)으로 증감률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한국부동산원

- 인천 매매수급지수는 기준선(100)을 소폭 밑돌았고 전세수급은 전 유형에서 높아졌으며, '26.7월 주택거래량은 전년동월보다 늘었으나 예년 같은 달 평균은 밑도는 수준
 - 전월대비 매매수급은 아파트(△0.50%)·연립·다세대(△0.32%)·단독주택(△0.31%)이 모두 내린 반면, 전세수급은 아파트(3.23%), 연립·다세대(1.76%), 단독주택(0.64%) 전 유형에서 상승
 - '26.7월 주택거래량은 3,706호로 전월대비 8.9% 감소했으나 전년동월대비 2.9% 증가하였고, 최근 3개월 7월 평균치(3,884호)를 4.6% 하회하는 수준



자료 :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한국부동산원

〔인천 주택거래량(매매)〕

동(호) 수 (전년동월, %)	2025년	2026년						
	평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주택거래량(인천)	3,567 (△0.3)	3,668 (66.3)	3,480 (12.4)	4,417 (4.4)	4,507 (9.0)	3,729 (△8.5)	4,067 (△12.8)	3,706 (2.9)

- 주 1) 주택거래량은 인천지역 주택유형(아파트, 연립다세대, 다가구주택, 단독주택)에 구분 없이 매매인 거래를 합산한 값
2) 자료: 부동산거래현황, 한국부동산원

최근 인천경제

발 행 처 인천연구원
발 행 일 2026년 9월 30일
주 소 (22711) 인천광역시 서해구 심곡로 98
전 화 032-260-2600
홈페이지 www.ii.re.kr

본 리포트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으로 연구원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
본 리포트의 저작권은 인천연구원에 귀속되며, 원고의 무단전재, 복제,
배포 등 저작권 전반에 관한 침해 행위를 금합니다.